



## 노랑머리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우** 리 집에는 20년씩 나이차가 나는 세여자가 있다. — 6학년이신 어머니, 4학년인 나, 2학년인 딸이 주인공이다.

워낙 세대 차이가 크다보니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마다 문화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도저히 사이 좋게 같이 웃기는 곳이 바로 미용실이다.

우선, 60대 어머니는 지금도 당신의 친정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일부러 찾아 가신다. 물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뿐인 율케가 같이 늙어가고 있으므로 친정나들이 겸 율케가 다니는 미용실을 덩달아 다니신다. 머리 모양은 무조건 짧은 커트에 뽀글 퍼머인데 조금만 덜 곱슬거리면 잘못 나왔다고 투덜 거리신다.

이유는 물론 조금있다 또 해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이다.

40대인 나는 동네 상가에 있는 가까운 미용실을 다닌다. 재빨리 집중해서 머리를 다듬어 주고 압전하기 때문이다.

옆손님과 왕수다를 떠들며 가위를 흔들며 머리 맡긴 내가 불안한 경우를 당해봤으니까.

딸은 어려서부터 출근때 마다 울어대며 떼어놓기 힘들게 하였다.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미용실의 딸아이를 사귀어서 틈만

나면 놀러 가더니 어느 날 그럴듯한 제의를 해왔다. “엄마도 병원 안가고 미용실 하면 좋겠다. 그러면 할머니랑 나도 공짜로 할 수 있구 좋잖아?” 살림살이가 붙어 있어서 늘 엄마결을 맴돌며 노는 친구가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러던 애가 고등학교 때는 괜한 머리를 뺨친다고 스트레이트 퍼머를 하더니 요즘은 노랑계 컬러링을 하고 다닌다.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 완전 금발을 해야 한다. 엄마인 나로서는 외국서 유행하는 코뿔기 안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다.

그러나 탈색시킨 노랑머리는 검은 눈동자에 갈색피부인 동양인의 얼굴을 더 탁하게 보이게 하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단순히 멋내기의 대상인 줄만 아는 딸에게 그 쓰임새와 신비함에 대해 해줄 이야기가 있다. 땅위에 나무와 풀이 있듯이 피부에 털이 있어서 뜨거운 햇볕에 머리가 데이지 않게 해주고 추위에도 보온을 해준다. 아프리카 사람들 머리카락은 아예 곱슬겨려서 일정한 두께로 적도의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준다.

눈썹털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과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동물 중에는 사막

에 사는 낙타의 속눈썹이 가장 길어서 모래바람을 견딜 수 있다.

사람의 머리털은 10만 개가 넘는데 수명은 5~10년 쯤 된다.

1년에 10~15cm가 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모발이 해독력이 있고 습도 조절도 하며 황산화물질이 있어서 녹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모아서 형점으로 쓴 다음 바늘을 꽂아두면 반영구적으로 녹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날 머리카락은 1천8백여종의 생체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정보의 보물창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머리카락 몇 올만 분석해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최첨단 의료기기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벌써 머리카락만 갖고도 암을 발견하는 기술도 개발되어 현재 응용중에 있다.

옛부터 모발은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이 진실로 입증된 것이다.

독한 화학약품에 고운 머리카락과 피부를 흠뻑 절이는 것은 너무 과격한 미용법이 아닐까.

철없는 딸이 이를 알아주면 좋을텐데...